

최양업 토마스 신부 탄생 200주년 순례 ‘그길을 따라 걷다’ 체험 수기

최양업토마스 신부님의 순례길

감독 성당 권은혜 라파엘라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순례길을 가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책2권을 사고 난 후 누구랑 순례를 갈까! 남편과 함께 순례의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며 시간을 낼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시간을 맞춰서 순례길을 가자고 했습니다. 25년을 매일 같은 공간에서 쉽도, 일도 같은 곳에서 일을 하는 신비! 하느님의 신비이겠죠! 일만 이래도 어떻게 하면 떨어져서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도 매일 미사까지 함께 동행을 하니까 이제는 순례까지 하느님께서 허락하셨으니 하느님의 이끄심에 맡기렵니다. 결혼을 하고 18년을 식당을 남편과 하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그만두면서 꽃동네로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꽃동네 일을 하면서 전례를 맡고 수녀님과 장애를 갖춘 식구들 하고 가족들을 돌보시는 직원선생님들까지 하느님께서서는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차츰차츰 아픈 몸도 좋아지고 지금은 건강한 모습으로 이곳에 사시는 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점점 많이 배우고 싶고 처음에는 아프니 아무것도 못 하고 이 세상 모든 것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 것이니 다 맡기고 감사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세상 것에 눈을 뜨고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높아지려 하고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못하고 더 넓게는 나 자신이 세상에 드러나는 걸 싫어하다 보니 겉으로만 보여지는 저 자신이 힘들기만 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귀를 닫아 놓았습니다. 이 순례의 길에 초대되어서 온전히 하느님께 제 삶을 맡겨 보렵니다. 아무것도 없는 별판에 비석하나 달랑 있는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한 사람이라도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했던 신부님의 순례길 상상을 해보려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순례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텅 빈 묘지 텅 빈 성당 아무것도 없는 성지 하느님은 왜 이곳으로 순례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저의 기도는 세상에 혼자 떨어져 매순간 이 힘든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하는 게 저의 일상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에 함께 살고있는 이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이들, 시어머니 저한테는 무거운 짐이 되어 저 자신을 힘들게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곳으로 보내진 것만 같은 생각으로 삶이 무겁고 벅찼습니다. 겉으로만 보여지는 선한 행위, 친절, 사랑 이 모든 것 안에는 하느님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춥고 이 텅 빈 곳에 수난받으신 하느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25년을 함께한 남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못 한 일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봐주는 천생연분이 겉으로만 보여줘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생각에 부끄럽다는 생각을하게 되었습니다.

다. 어렸을 때의 상처가 고스란히 맘속에 남아 있는 걸 치유하지 못하고 평생 48년을 방어기제를 쓰고 살았습니다. 상대의 말에 귀를 닫고 내 생각만 주장했고 내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짜증을 냈던 저 자신 나에 대한 섬, 여유, 사랑 아무것도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사로잡혀 다른 사람의 힘듦을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가셨던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길에는 항상 하느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사를 주기 위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힘든지도 모르고 기쁘게 활동하신 모습이 떠오릅니다.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께서 박해 때문에 더욱더 간절히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참 신앙생활을 찾아서 해매는 고달픈 여정을 외면하고 싶고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일 말고는 나에게 시간을 내어 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나를 순례의 길에 초대해 주셨구나! 이 길을 성모님 손 잡고 진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례의 길에 사랑하는 딸(가브리엘라)을 하느님께서 초대해 주시고 당고개 순교성지에 함께 하면서 냉담을 풀고 수리산성지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딸의 손을 잡고 “엄마는 소원 다 이루었다” 하면서 딸(가브리엘라)을 꼭 안아주면서 하느님도 가브리엘라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셔서 하면서 울컥 했습니다. 이 순례의 길이 하느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필요했기 때문에 초대해 주셨고 가장 사랑하는 하느님의 사랑을 내 안에 심고 가정공동체에서 이웃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라셨나 봅니다. 사랑을 듬뿍 받는 지금 이 순간 저는 이 세상에서 지금 하느님께 가도 소원이 없네요.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불편하거나 힘든 상황이 생기면 바로 넘어지고 원망하고 금방 포기해 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벗어던져 버리고 먼 곳으로 도망치기에 바빠 겉으로 보여지는 가식의 모습만으로 가득 찼던 저에게 이 순례를 통해 한없이 부족해도 늘 변함없이 옆에서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하느님을 잊고 나로 가득 채어졌던 시간들을 다시금 하느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가정에서의 부모의 모습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녀에게 귀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순례의 길이 삶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순례의 길이 시작됩니다. 바로 현재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맺음을 갖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최양업토마스 신부님의 순교정신을 본받아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